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이날 환율은 전일 대비 1.60원 내린 1,108.60원에 장을 마감

이날 환율은 미국의 우리나라 철강 관세 쿼터 면제 소식에 소폭 하락하여 전일 대비 1.60원 내린 1,118.6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오전 중 1,108.00원에 개장하여 결제수요에 1,111.30원까지 상승하였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철강제품을 쿼터 대상에서 제외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직후 반락하여 1,107원대까지 하락하였다. 롱 포지션 정리되고,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도 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내 위안화 절하 고시하며 달러위안환율에 연동하여 달러원환율은 다시금 소폭 상승하여 1,107~1,108원대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였다. 오후 들어서도 위안화 6.85위안 부근까지 상승하자 달러원환율도 1,119원대까지 상승하였고 장 마감 전까지 1,108~1,109원대에서 수급에 따라 등락하다 1,118.6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마감시점의 원-엔 재정환율은 992.92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09.50	1111.30	1107.10	1108.60	1108.8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93.86	999.03	990.96	998.77

금일 전망

금일 환율은 금통위 소수의견 여부 주목하며 1,11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

금일 환율은 금통위 소수의견 여부 주목하며 1,11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된다.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5원)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환 종가(원) 대비 7.55원 오른 1,115.4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금일 환율은 미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9월말보다 이른 다음주에 부과하길 원한다는 소식에 무역분쟁 우려감 증대되며 환율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르헨티나 폐소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신흥국의 불안한 흐름들 또한 달러원환율 상승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일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소수의견 및 이주 열 총재의 매파적 발언 여부에 따라 환율은 반락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월말을 맞이한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은 위안화, 신흥통화 움직임 및 금통위 소수의견 주목하며 1,110원대 초중반 등락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11.60 ~ 1119.2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223.21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55원 ↑

■ 美 다우지수 : 25986.92, -137.65p(-0.5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4.4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762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